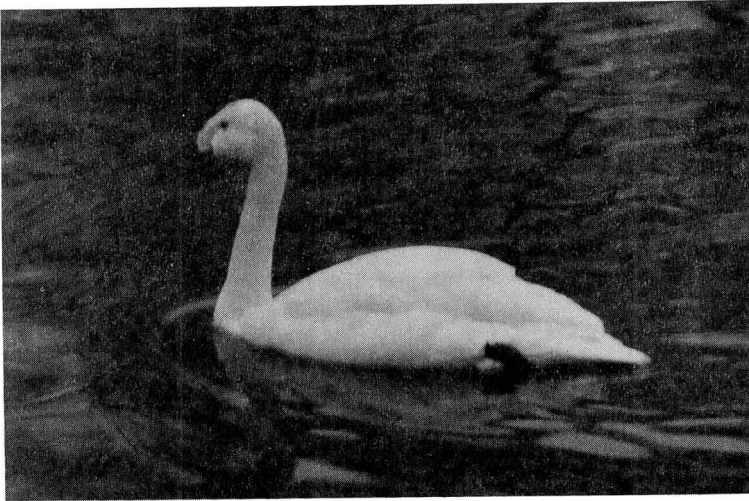


# 고 니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學名 *Cygnus columbianus jankowskii*

英名 Eastern bewick's Swan

고니는 일명 白鳥라고도 부르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이다.

우리의 한반도에는 매년 11월 하순이 되면 시베리아의 凍土를 떠나 겨울나기를 위해 정기적으로 到來를 하는 겨울 使節이다.

부리에서 꼬리까지의 全長이 130cm나 되는 거대한 수금류로서 온 몸이 순백색이므로 보이는 대로 하여금 우아함과 평화스러움을 안겨준다. 강이나 호수 때로는 바다까지 진출하지만 주서식지는 민물에 더 많이 서식하는데 천연기념물 17호로 지정된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에는 해마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는 하지만 겨울철 탐조에서는 그런대로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니류는 3종. 그 모습과 생태가 엇비슷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야외에서는 식별이 곤란하다. 고니보다 더 큰 종류인 큰고니는 가장 흔한 고니류로서 국내 우점종은 대다수가 이 種인데 이 큰고니 무리에 밥에 미만큼 섞이는새가 고니이기도 하다.

부리 기부의 노랑색 나출부의 넓이를 보고 식별하는데 큰고니보다는 면적이 좁고 둥근형태를 이룬다.

또 한종류는 흑고니이다.

이름 그대로 앞이마에 흑이 달린 종류이다.

과거 흑고니는 낙동강에도 더러 고니무리에 섞여 서식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동해안의 영랑호, 송지호, 화진포 등지에서 매년 관찰된다.

현재 이 3종의 고니류를 한데 모아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하고 있다.

10kg쯤 되는 몸무게를 날게 하기 위해서는 깃털이나 물위에서 5m이상 걸어가면서 탄력을 받아야 비로소 뜰 수 있는 체질도 특이 하지만 야외에서도 놀라지 않게 하면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불임성있는 조류이기도 하다. 눈에 뜨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수질오염으로 먹이가 줄어 들고 넓은 서식지가 인간에 의해 침식당하는 서식지박탈이 주원인이고 물오리 밀렵꾼에 의해 희생되는 숫자도 적지 않다.

세계적인 분포는 북유럽, 북아시아, 중국 사할린 일본 등지의 구북구인데 번식은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이다.

습지의 평원에 잡초의 줄기와 잎을 모아 화산 모양의 원추형 둥우리를 짓고 5-6월 한배에 5-6개의 알을 낳아 40일간 품어 어린새를 부화한다.